

전 세대 공감 도서 '나미야...' '곰돌이 푸...'

2018년은 책의 해로, 독자와 책에 대한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었다. 여기에 주 52시간 근로 시대가 도래하면서 책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올해 모든 연령층에서 고르게 사랑받은 도서는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 '곰돌이 푸, 행복한 일은 매일 있어', '언어의 온도'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12일 교보문고가 공개한 2018년 베스트셀러 성별·연령별 분석에서 파악됐다.

특히 올해 연간 종합 베스트 1위에 오른 '곰돌이 푸, 행복한 일은 매일 있어'는 50대, 60대 남성을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베스트 10위권에 올랐다. 무엇보다 캐릭터 도서의 한계를 딛고 모든 고객층의 사랑을 받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

'언어의 온도'는 전 연령대 베스트 10위권에 포함돼 지난 해 돌풍에 이어 스테디셀러로 자리를 잡아가는 모양새다. 또한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은 60대 이상 남성을 제외한 전 연령대 베스트 10위권에 들었다.

여성독자에게 사랑을 받은 도서로는 '무례한 사람에게 웃으며 대처하는 법', '82년생 김지영', '나는 나대로 살기로 했다' 3종이다. 이들 도서는 전 연령대 베스트 10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다만 '나는 나대로 살기로 했다'는 60대 여성 이상 베스트 순위에서 아쉽게 11위에 그쳤지만 60대 이상 남성 베스트 4위에 오른 '나는 둔갑하게 살기로 했다'와 대조를 이뤘다.

페미니즘을 대표하는 책으로 인식되는 '82년생 김지영'에 대한 남성 독자들의 관심도 눈길을 끌었다. 주인공 김지영과 동년배인 30대 남성에게는 아깝게 10위권 밖(11위)에 머물렀지만 40대 남성(9위), 50대 남성(7위) 순위에서 오르며 여성 독자뿐 아니라 남성 독자들의 관심도 높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교보문고 올해 베스트셀러 연령별 분석

'무례한 사람에게...', '82년생 김지영' 여성독자 관심
유시민 '역사의 역사', 예스24 독자들이 뽑은 '올해의 책'
이국종 교수 '곰든아워', 출판인들이 뽑은 올해의 책 1위

인터파크 올해의 종합 베스트셀러 순위에서는 '곰돌이 푸, 행복한 일은 매일 있어'가 1위를 차지했다. 또한 '모든 순간이 너였다', '무례한 사람에게 웃으며 대처하는 법' 등 에세이 도서가 최상위권을 휩쓸었다. 공감과 위로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힐링 에세이가 독자들의 지지를 받으며 주목을 받았다는 방증이다.

유시민 작가의 '역사의 역사'는 예스24 독자들이 뽑은 '올해의 책'에 선정되면서 이름값을 톡톡히 했다.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는 '올해의 커버' 1위에 선정됐다. 올해의 책 투표에는 독자 22만1538명이 참여했다.

'역사의 역사'는 2만7335표(12.3%)를 얻어 가장 많은 독자들의 선택을 받았다. 2위는 2만5190표를 얻은 '신경 끄기의 기술'(11.4%), 3위는 '곰돌이 푸, 행복한 일은 매일 있어'(8.5%)가 차지했다.

이 밖에도 '알쓸신잡'에 출연했던 정재

승, 유현준 교수의 도서와 베르나르 베르베르, 기욤 뫼소, 히카시노 게이고 등 두터운 팬층을 보유하고 있는 인기 작가들의 신작들도 올해의 책에 선정됐다.

이국종 아주대 의과대학 교수의 '곰든아워'는 출판인들이 뽑은 올해의 책 1위에 뽑혔다. 아울러 작가가 뽑은 올해의 책에는 김훈비의 '우아하고 호쾌한 여자축구', '19호실로 가다'가 선정됐다.

예스24는 소설, 시, 에세이 작가 92명과 출판사 편집자 및 마케터 등 9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곰든아워'는 삶과 죽음을 가르는 경계에서 17년간 고군분투한 외상외과 의사의 삶을 담았다. 중증외상 분야 불모지나 다름없던 한국에 제대로 된 중증외상 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한 지난한 과정도 담겨 있다.

'우아하고 호쾌한 여자축구'는 축구를 하는 여자들의 연대기를 담은 에세이며

'19호실로 가다'는 억압된 여성의 일상과 저항을 그렸다.

문학평론가인 신형철 조선대 교수의 산문집 '슬픔을 공부하는 슬픔'은 출판인 5명에게 추천을 받아 출판인이 뽑은 올해의 책 2위에 올랐다.

한편 소설 전문 팟캐스트 '남만서점'이 '2018 소설가 50인이 뽑은 올해의 소설'에는 김봉곤 작가의 '여름, 스피드'와 최은영 작가의 '내게 무례한 사람'이 공동으로 뽑혔다.

김봉곤 작가의 '여름, 스피드'는 작가의 첫 소설집임에도 불구하고 대중과 평단의 지지를 받으며 출간과 동시에 큰 이슈를 일으켰다. 게이라는 정체성을 당당히 밝힌 김봉곤 작가는 사랑과 이별의 아픔을 특유의 감성과 문체로 풀어내며 자신만의 색깔을 만들었다.

한국 문단을 이끌 작가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히는 최은영 작가는 2016년 '소설가 50인이 뽑은 올해의 소설'에서 이미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이번에 다시 1위를 차지하며 소설가들이 좋아하는 작가로서의 입지를 확인했다. 이밖에 2위에는 김근희 작가의 '경애의 마음'과 이기호 작가의 '누구에게나 친절한 교회 오빠 강민호'가 올랐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우현학술상에 이선옥 박사 선정

조희룡 삶과 예술세계 조명
20일 인천서 시상식·강연

제31회 우현학술상에 '우봉 조희룡'(돌베개)의 저자 이선옥(사진) 박사가 선정됐다.

우현상(女玄賞)은 인전이 낳은 한국 최초의 미학자이자 미술사학자인 우현 고유섭 선생의 학문적 업적을 기리고 우현의 정신을 창조적으로 계승하기 위해 인천문화재단이 수여하는 상이다.

수상작인 '우봉 조희룡-19세기 목장의 영수'는 저자가 탐구해온 조선시대 사군자 그림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19세기 파격적인 대화 그림으로 당대를 풍미했던 우봉(又峰) 조희룡의 삶과 예술을 다룬 책이다.

우봉(又峰) 조희룡(1789-1866)은 조선 회화의 근대를 연, 자유와 격정의 예술세계를 선보였던 선각자였다.

19세기라는 변화의 시기에 서화 영역에서 새로운 흐름을 이끈 인물로 특히 대화 그림을 잘 그렸던 것으로 평가받았다. 책의 부제인 '19세기 목장의 영수'는 '먹을 다루는 세계의 우두머리'라는 뜻이다.

책은 서화작품 뿐 아니라 저자를 통해



시인이자 문학가로서의 조희룡을 조명하고 있다. 저자는 관련 문헌을 폭넓게 조사하고 해당 작품을 상세히 분석해 이를 당시의 시대적 배경과 함께 다각적으로 고찰했다.

이를 토대로 저자는 조희룡이라는 화가와 조선 말기 화풍에 대해 새롭게 이해할 수 있는 길을 제시했다.

한편 이선옥 박사는 전남대를 졸업하고 서울대 대학원에서 미술사로 석사학위를, 한국중앙연구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시상식은 오는 20일 오후 3시 인천아트플랫폼 A동 이음마당에서 펼쳐지며, 학술상을 수상한 이선옥 박사의 '우봉 조희룡' 특별 강연도 예정돼 있다. 문의 032-455-7152.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퓨전국악그룹 '공명'의 콘서트 장면.

전통음악과 퓨전국악의 만남

'공명' 콘서트 '놀자'
국립광주박물관 15일

국립광주박물관(관장 김승희)은 15일 오후 4시, 대강당에서 퓨전국악그룹 '공명'의 콘서트 '놀자'를 개최한다.

'공명'은 전통문화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대표적인 국악 단체로 1997년 설립 이후 20여 년간 창작활동을 해오고 있다.

특히 직접 고안해 제작한 대나무 악기 '공명'을 비롯해 전통악기에 다른 나라

의 악기를 접목, 새롭고 다양한 음악을 표현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이번 공연에서는 창작 국악을 바탕으로 '보름살', '통해야', '공명유취' 등 9개의 곡이 연주된다. 전통음악을 기반으로 한 월드뮤직을 통해 예술적이지만 무겁지 않게, 재미있지만 가볍지 않은 웃음을 관객들과 나눌 예정이다.

무료로 진행되는 이번 공연은 12일부터 20여 년간 창작활동을 해오고 있다.

문의 062-570-7016.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장수 코미디 연극' 잇따라 광주 찾는다

'라이어' 14~18일, 20~27일
'죽여주는 이야기' 25~30일

전국 수백만명의 관객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장수 코미디 연극'들이 잇따라 광주 관객을 찾는다.

먼저 '국민연극'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연극 '라이어'가 14~18일(광주시 남구 구동빛고을시민문화관), 20~27일(서구 쌍촌동 5·18기념문화센터 민주홀) 광주 무대에 오른다. 지난 1998년 국내에서 초연된 '라이어'는 3만7000회 공연을 통해 누적 관객 530만명을 넘겨 국내 '최장', '최다 공연',

'최다 관객'이라는 기록을 남겼다. 유럽·아시아를 비롯한 전 세계 60여개 나라에서 공연된 이 연극은 우리나라에서 20년째 상연되고 있다. 사랑하는 두 여인을 두고 정당한 스키타에 맞춰 '이중 생활'하는 택시 운전사 존 스미스의 일상은 강도 사건에 휘말리며 엇갈리기 시작한다. 평일 공연 오후 7시 30분, 토·일요일·공휴일 오후 3시·7시. R석 3만5000원, S석 2만5000원.

또 공연 10주년을 맞은 연극 '죽여주는 이야기'가 오는 25~30일(평일 오후 7시 30분, 주말 오후 3시·7시)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무대에 오른다. 전국에서 300만 명 넘는 관객을 동원한 이 작품은 올해 '한



연극 '라이어'

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 국내우수공연'에 선정됐고 지난 2015년부터 3년간 일본에서 라이선스 공연을 가졌다. 관객 참여극으로 진행되는 공연에서는 화려한 언변과 자신만의 철학으로 관객들에게 '확실한 안

락사'를 선사한다는 주인공에게 정체불명의 여인 '마돈나'가 찾아오면서 예상치 못한 이야기가 펼쳐진다. 평일 2만원, 휴일 2만5000원. 문의 1688-3820.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개업·성업 안내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독자서비스부 062.220-0551



금강버티컬
버티컬, 커튼, 블라인드, 홀딩도어, 폼비올스크린, 전동롤스크린, 우드블라인드, 실사롤스크린, 허니콤블라인드의 제작 및 시공
☎062)514-6118, 010-5627-6119

그집고기
북구 첨단 연신로 107번길 5-20 (첨단 2지구 문화실험 뒤) 편, 돼지고기 전문, 닭발
대표 양병학 ☎010-6648-8842

고전방
동구 공동 34-4 (중앙초등학교 후문) 도자기, 서양화, 고서화 전문판매점
대표 김화중 ☎062)224-4869

하얀나라 운동화세탁
북구 우산동 614-10(구,북광주등기소 옆) 운동화·가방·이불 "2컬러부터 수거배달"
☎062)269-4450, 010-4607-5773

고흥나루터
동구 지산동 705-9 (법원뒷길) 하모(참정어), 샤브샤브 전문점 바다정어구이, 장어탕
대표 모복자 ☎062)222-3092

기담철학원
북구 우산동 무등도서관 옆 (우산그린공원 옆) 사주(음운·양론) 쉽게 가르쳐드립니다. 개인·단체 환영
☎062)432-1324

교원 빨간펜 남광주센터
최고의 교육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선생님을 모십니다. 통합독서지도사 kbs미디어 온라인 평생교육원 자격증 취득가능
☎010-3613-3145

청학철학원
북구우치로 39-1 (중흥실험2층) 작명, 사주, 운세, 궁합, 택일, 시험, 승진, 사업, 재물, 직업, 부모교육 및 전문 연구원
청학 서광호 ☎010-9866-2332

으뜸공인중개사
북구 두암동 동시민교회앞 골목 아파트, 빌딩, 원룸, 주택, 상가 토지 전월세 및 매매임대 분양권 상담알선 책임중개 전문
☎062)263-5383, 010-6338-5383

신신예술의집
동구 공동 예술의 거리 기념품 전문 판매점
대표 서태석 ☎062)222-1936

서울표구점
북구 중흥동269-14 (중흥3동주민센터 입구 맞은편) 병풍, 액자, 족자, 표구 일체
☎010-3633-2790

메타루이펜션
담양군 담양읍 학동리 377-1번지 (담양프로방스 옆) 편백과 황토로 지은 자연건강 숙소 가족탕 겸함, 예약받습니다.
☎061)383-2698, 010-3603-2698

양지공인중개사
북구 두암동 부영아파트 정문앞 아파트, 빌딩, 원룸, 투룸, 상가, 임야, 토지, 경매, 권리분석
대표 전병양 ☎062)263-2223

박당화랑
동구 공동 51-18번지 예술의 거리 한국화, 서양화 매매 및 감정
대표 박환승 ☎062)222-6866

석당화랑
동구 공동 예술의 거리 병풍, 액자, 족자, 표구일체 고서화 위탁판매
대표 이석재 ☎062)222-3118

토산철학원
북구 두암동 에덴산부인과 정문옆 작명, 개명, 사주, 신수, 궁합, 택일, 상호명 개인지도함.
대표 이태연 ☎010-4106-5055

국수나무옹봉점
북구 용봉동 109-4번지(국민은행 건물내) 모든 메뉴 포장가능 도시락 단체 주문 받습니다
☎062)526-5475, 010-8621-5959

해피니스요양병원
북구 삼정로 142 (두암동, 청야맨션 건너편)
☎062)251-8400